

## 계란 수급 및 가격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세계일보 7월 1일자 「계란 한판 1만원 훌쩍... 자영업자 '곡소리」 기사 관련 -

### < 주요 보도내용 >

7월 1일(수) 세계일보는 “계란 한판 1만원 훌쩍... 자영업자 ‘곡소리’” 기사에서 “특란가격 두달세 30% 넘게 급등”이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기사에서 인용한 계란 XL 10구 가격은 지난주(6.22.~6.28.) 평균 5,147원으로 지난 4월(4.27.~5.3.) 대비 33.0% 상승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정부의 신선란 공급 확대와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추진 등으로 6월 말\*부터 10구 계란은 4,300원 이하로 하락하였습니다.

\* 계란 10구 가격 : (6.27) 5,302 → (6.28) 4,300원 → (6.29) 4,266 → (6.30) 4,266

또한, 10구 상품은 30구 상품보다 포장재, 포장 작업, 물류 비용 등이 추가되어 통상적으로 개당 판매가격이 더 높게 형성됩니다.

김밥집, 제과점 등 자영업자는 대부분 10구가 아닌 30구 또는 박스 단위로 구매하고 있어 기사에서 인용한 10구 가격이 자영업자의 실제 구매가격을 대표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 자영업자의 원재료 구매와 밀접한 30구 계란의 평균 소비자가격은 지난주(6.22.~6.28.) 7,553원으로, 지난 4월(4.27.~5.3.) 7,073원 대비 6.8% 상승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기사에서 제시한 10구 가격 상승률과 실제 대용량 구매가격의 상승률에는 차이가 있으며, 계란 가격은 판매 단위와 유통 형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현재 계란 가격은 지난해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에 따른 산란계 감소와 소모성 질병 등 생산성 저하 등의 영향으로 상승한 상황입니다.

농식품부는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 현재까지 신선란 3,123만 개를 수입·공급하고 있으며, 앞으로 8월까지 추가로 2억 개를 매주 최대 2천만 개 수준으로 순차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계란가공품 할당관세 연장·확대(상반기 4천 톤 → 하반기 8천 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농협 계란 납품단가 인하 지원, 여름철 고온 대응 지원 등을 병행하여 계란 수급 안정과 소비자 부담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식품부는 계란 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생산자·유통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안정적인 계란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담당 부서	축산정책관	책임자	과 장	문원탁 (044-201-2331)
	축산경영과	담당자	사무관	박춘규 (044-201-2344)

